

덕영재단 소개

덕영재단은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기르고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 1996년 6월 13일에 설립한 비영리 교육재단입니다.

덕영재단 주요 사업 실적

■ 국내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 장학사업 : 매년 12월 장학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800명에게 장학금 지급
- 정기 장학생 사업 : 매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을 정상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정기 장학생 32명에게 장학금 지급

■ 국내외 학생을 위한 도서보급 지원사업

- 교육만화 출판 보급 : “우리사이 짱이야”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만화 출판, 보급과 비디오를 보급 지원하여 전국 초등학교 및 기관에 무료보급
- 점자악보 출판 후원음악회 : 매년 10월에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점자 악보 출판 후원음악회를 열어 점자악보를 출판하여 전국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에 무료로 보급. 1999년 바이엘 1·2, 호만 1·2, 2000년 호만 3·4, 가곡집 1·2, 2001년 알프레드초급 1·2·3, 구스타보랑귀누스 1, 2002년 구스타보랑귀누스 2·3, 알테 1·2, 음악통론과 그 실습1·2 2003년 알프레드중급 1·2·3, 음악통론과 그 실습3·4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교육 경제 및 역사의 교류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연구비 지원 : 1999년 연금 투자 극대화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99-2003 시카고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센터, 2003-2004

위스콘신대학

■ 국민정신함양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몽사업

- 인성교육 연구비 지원 : 1999년 - 2001년 인성교육 연구, 2000년 - 2001년 Center for Educational Partnerships(음악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1년, Chenny Troupe(동물을 통한 청소년 문제 치료), 2002년-2003년 Lookingglass Outreach Program(연극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인성교육훈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사업

- 어린이 뮤지컬 공연 : 5월 김포대학 어린이 축제에 김포, 강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 2001년 “알라딘”, 2001년 “춤추는 허수아비”(용인지역), 2002년 “팔쥐와 햄버거”, 2003년 “아주 먼 예닐”, 2004년 “검정 고무신”
- 세미나 및 워크숍 : 매년 5월 “Through The Lookingglass/ 청소년,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000년 시카고시와 공동주최로 “미국 청소년 프로그램 전문가 및 교수 초청 워크숍”, 2001년 부모님들을 위한 워크숍 “자녀의 공격성,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002년 “집단따돌림(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 2003년 “사회가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2004년 “가정해체 증가와 상처받는 아이들”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캠프 : 매년 8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무료 캠프 개최.
-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 : 매년 12월 무료 청소년 뮤지컬 공연. 2000년 “방황하는 별들”, 2001년 “2001 방황하는 별들”, 2002년 “언제나 마음은 태양”, 2000년 “Orbert Davis Quintet 초청 재즈 공연”, 2003년 “덕영트리오와 다케시 가케하시 초청 연주회” 문화적 혜택을 받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연극이나 음악 등 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일식”, “대박”, “태풍”, “시골선비 조남명”, “텔라구아다(De La Guarda)”, “크리스마스 캐롤”등 다수의 작품 관람).

앞으로도 본 덕영재단은 미래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Homepage : www.dukyong.org

일 정 표

- 가정해체 증가와 상처받는 아이들 -

10:00~10:30	등록	
10:30~10:40	인사말	이사장
	덕영재단 소개	
10:40~11:40	가정의 의미와 역할 /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심리적 반응	노주선
11:40~13:00	점심식사	
13:00~14:00	가정해체의 현실과 영향	김유숙
14:00~14:10	휴식	
14:10~15:50	가정해체 청소년 심리평가 사례	소유경
15:50~16:00	휴식	
16:00~17:30	가정, 새로운 의미를 위하여-상처받는 아이들의 치유	한혜빈

차 례

가정의 의미와 역할 /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심리적 반응	9
가족해체의 분석과 문제점	19
가정해체 청소년의 심리평가 사례	35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위하여 :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	39
도움을 주신 분들	47

인 사 말

2004년도 중반기에 들어선 6월 제5회 청소년 우리의 희망“가정해체 증가와 상처받는 아이들”워크숍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TV나 신문지상에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이혼으로 손자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게 된 고령의 조부모님들도 상당수라 합니다. 얼마 전 TV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 이혼의 후유증으로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해온 부모들의 이야기도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당사자들의 고통과 좌절감은 무어라 표현하기 힘들 것 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동안 지켜보는 아이들의 불안감과 고통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층 더 어려운 것으로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정해체로 인한 결식아동의수가 무려 30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지켜보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인제공자라는 죄의식과 부모를 향한 분열된 의리감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혼란은 우울증, 학원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마약이나 알콜중독 등을 유발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외국인 학교 소식지에서 읽고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바비는 어느 날 아버지 회사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비에게 회사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며 하루의 일과를 자상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어하는 바비가 사랑스럽고 신통하여 동료들에게 소개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바비에게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바비는 “아빠 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한데 질문이 하나있어요.”하며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를 받으세요?”하고 물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하루 종일 시간낭비만 한듯하여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바비에게 “바비. 너는 하루 종일 배운 것이 없고 딴 청만 부렸으니 당장 너의 방으로

올라가거라.” 하였습니다. 조금 후 아버지는 풀이 죽어 올라가는 바비가 마음에 걸려 바비방에 올라가서 “잘 자라.”하고 불을 꺼주려고 하니 바비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데 아빠 아까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해주셨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꼭 참으시며 “시간당 20불 받는 셈이다.” 하였더니 바비는 아버지한테 10불만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비에게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하니?” 하면서 10불을 주었더니 바비는 환하게 웃으며 베개 밑에서 10불을 꺼내들고 “이제 20불을 드릴 테니 제게 1시간만 집중된 시간을 내 주세요.” 하였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아버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바비는 바로 우리아이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갈망하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가정의 해체는 삶의 기본을 흔드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진 불신과 분노는 우리사회가 합심하여 이해와 인내심으로 치유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하루의 워크숍으로 대단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후원하여 주신 교육인적자원부, 김포대학, 대한어머니회 또한, 워크숍을 주도하여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노주선 대표님, 발표자님들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영재단 이사장 전 헬리시아



가정의 의미와 역할 /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심리적 반응

노주선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박사 수료
-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임상심리레지던트 수료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 호서대학교 심리학과 겸임교수
 - 한국인성컨설팅 대표

가정의 의미와 역할 /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심리적 반응

노주선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박사 수료
-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임상심리레지던트 수료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 호서대학교 심리학과 겸임교수
- 한국인성컨설팅 대표

I. 가정의 의미와 역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관계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한 관계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관계가 가족 또는 가정이 될 것이다. 즉, 인간은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며, 대부분의 경우 성인이 되면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며 살아가게 된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단위이므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에서는, 가족과 가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가정의 의미

- 1) 가족(家族, family) : 근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최소의 거주집단. ‘두 사람 이상의 남녀가 결혼으로 결합하여 자녀를 갖고, 함께 협력해서(同居) 사는, 비교적 영속적인 사회적 단위’
- 2) 가정(家庭, home) : 가족을 포함한 인간생활의 기본단위, 일반적으로 가족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가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인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인간과 환경(의, 식, 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활공동체’
- 3) 가정생활: 가족이라는 소집단(인간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과 가정을

구성하는 공동체(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져 관습이나 생활양식 등을 만들어 가는 갖가지 활동.

4) 가정환경: 가정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극, 조건, 상황들을 총괄한 것으로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된다.

※ 결혼과 혈연이라는 요소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보다 능동적인 기능의 생활공동체인 ‘가정’의 사전적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는바, 본 논의에서도 가족과 가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유사한 개념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가정의 역할

인간은 가정을 만들어 생명의 유지 및 생활의 향상, 발전을 목표로 살아간다. 가족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를 알게 한다. 가정내에서 인간은 어떻게 우리의 욕구들을 의사소통하는가와 어떻게 상호 호혜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언어적 비언어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친밀감, 공감, 동정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유머와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센스-를 배우게 된다. 또한 강한 정서와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며, 통제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타인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 이외에도 우리들은 가정에서 수면을 취하고 식사를 하는 등 피로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보다 구체적인 가족의 기능들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2-1. 가족의 기능

- 1) 성행동의 규제/ 성적 욕구충족의 기능
- 2) 사회적 재생산/자녀출산의 기능
- 3) 양육과 사회화/양육과 보호의 기능: 태어난 어린이는 우선 생물학적으로 독립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사람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사회성원으로 자라자면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는 이를 통하여 문화의 지속과 전승을 확보한다.
- 4) 사회적 보호와 정서적지지/보호의 기능: 가족은 또한 그 성원이 외부의 위협을

- 받을 때, 곤경에 빠졌을 때, 노후(老後)에 서로 보호해 주고 상부상조할 뿐 아니라 친밀한 유대, 표출적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 5) 사회적 정체부여와 지위귀속/사회와 기능: 개인의 사회적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은 가족에의 소속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도 자기가 태어나는 가족의 지위에 따라 우선 귀속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 6) 종교적 기능/조상숭배 의식: 가족은 친족간의 우애를 굳히려는 뜻에서 조상숭배와 같은 의식을 통해 종교적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제도의 발달로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 7) 경제적 기능/경제적 생산과 소비: 과거 농경사회 이전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주단위였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가족이 생산의 기능은 하지 않으나 사회적 소비단위(消費單位)로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현대에는 다양한 다른 제도의 발달로 교육적 기능, 종교적 기능 등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가족의 기능들 중에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사회적 보호와 정서적 지지, 경제적 기능과 같은 기능들은 다른 제도들에 의해서 대체되기 어려운 가족의 고유한 역할일 것이다. 그 중 사회적 보호와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사회적 요인은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들이 추후 뚜렷한 자아정체감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응하며 또 나아가 그 자신들이 건강한 새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다음에서는 가족구성원중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부모의 역할

- ① 0세-1세 반(유아기): 아동에게 충분한 자극과 애정에 찬 상호관계를 제공하며, 유아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풍부한 사랑과 정을 전달한다. 기계적인 보살핌 보다는 상호교환의 감정적 사랑이 중요한 시기이다.
- ② 1세 반-3세 (걸음마기): 부모의 확고하고 믿음직한 통제와 지도가 필요하다. 독립성을 최대한 길러줌과 동시에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향을 통제하고, 자기 충동 특히 공격적 충동을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율음과 그림, 깨끗함과 불결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협조의 정신을 길러줌이 중요하다.

- ③ 3세-6세 (학령전기): 부모의 이해성과 변함없는 친절이 중요한 시기이다. 남성, 여성의 구별을 명확히 해주고 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사실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간결하게 설명해준다. 남자의 경우 남성다운 운동과 활동을, 여자인 경우 여성다운 활동을 고무시킴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중요한 모델이 된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문화적 경험을 하도록 도와준다.
- ④ 6세-12세 (학령기):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일에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길러주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준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의 기본자세와 지식의 습득이 주는 기쁨을 맛보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도록 도와준다. 동시에 지적인 발전뿐 아니라 육체적, 감성적, 개성적 발전도 강조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상을 갖게 하고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 ⑤ 12-18세 (청소년기): 이해와 신중성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따르지만 자아정체성을 얻으려는 추구하고 실험을 허용한다. 확고한 지도가 필요하지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청소년 자신이 풀 수 있도록 상담역을 함이 중요하다. 각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부모의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민감하고 수용적인 태도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I.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심리적 반응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가정이 해체되었을 경우 청소년들은 어떤 심리적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먼저 가족해체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살펴본 후 가족/가정 해체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일반적 심리적 반응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가족해체

가족 해체과정은 가족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서 가족 목적의 불통일, 태도의 부적응, 인적 배치의 비조정 등에 의해서 가족기능에 점차로 장애를 발생시켜 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해체는 해체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적 징조가 나타난다. 즉 해체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혼이며, 이 경우 형식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가족분열 상태이다. 다음으로는, 가출, 별거, 폭행, 폭언, 기아, 소년비행, 만취, 의절(義絶) 등이 있다.

- 결손가정: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사망, 이혼 등으로 말미암아 양친 또는 그중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

2. 청소년기의 특성과 위험-보호 패러다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체성 확립이라는 발달상의 과제를 완수해야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며,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적응적 발달과정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위험-보호요인 패러다임(risk-protector paradigm)이 중요한 이론적 틀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즉, 위험-보호 요인 패러다임은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발전시키지 않고 보다 적응적인 발달경로를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험요인을 알아내는 것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능한 보호요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청소년기 심리장애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심리장애-우울장애와 불안장애와 같은 내현화 장애 뿐만이 아니라 품행장애와 주의력장애와 같은 외현화 장애를 포함한 장애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중 부모의 불화 및 이혼과 가정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자녀간 갈등, 어머니와의 관계 악화, 부모간의 갈등 등 가족관의 불화, 품행장애,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 간섭이 심한 경우 등 역기능적 가족관계가 심리장애를 예측하는 중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가족이 해체되고 결손가족이 생성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이혼가정의 아동과 청소년

아동들은 부모가 이혼을 할 때 고통을 받는다. 부모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아동

은 고통, 혼란, 미움, 쓰디쓴 실망, 실패의식과 자아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해체는 아동기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성인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불행할 결혼이었다. 하더라도 가정의 파탄은 대개 아동에게 충격적이다. 적응 과정 동안, 이혼부모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들 자신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떠나가는 부모에게 느끼는 거부감으로 가슴 아파하며 부모 모두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그들은 우울하고 적대적이며, 파괴적이고, 신경이 날카로우며, 외롭고, 슬퍼한다. 대개 사고를 저지르기 쉽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한다. 그들은 피로나 불면증, 피부장애, 식욕감퇴, 주의산만등으로 고통을 겪는다. 또한 그들은 학업과 사회생활에 흥미를 잃게 된다.

3-1.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있어서의 연령차

① 학령전 아동(2세 반~6세): 상당한 스트레스의 징조를 보인다. 2세반에서 3세반의 아동은 슬퍼하거나, 울고, 매달리며, 잠을 못자고,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다. 4세된 아동은 흐느껴 울고, 다른 아동을 때리며 자신을 비난한다. 5, 6세의 아동은 불안해하며 공격적이다; 그들은 신체적 접촉을 갈망한다. 어린 아동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혼의 원인이라 느끼며, 자기가 어떤 나쁜 것을 해서 부모가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두가지 공상을 하기 쉽다. 즉 가지들이 버림받는다라는 무서운 공상과 부모들이 재결합한다는 편안한 공상이다. 이혼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인형놀이를 하는 모든 유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인형을 서로 꼭껴안게 해서 함께 침대에 두었다.

② 초등학교 연령(6~12세): 이 시기의 아동들은 매우 놀라게 된다. 처음 이혼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당황한 나머지 이웃집으로 달려 가기도 하고, 심각한 구토를 할 수도 있다. 이들 아동들은 특히, 이혼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한 부모, 또는 부모 모두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전환시키기도 한다. 학령기 아동들은 자기 부모들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어린 학령기 아동은 자신이 부모들의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부모들이 사이 좋게 되는데 대한 책임으로 느낀다. 더 나이든 학령기 아동은 부모의 내적인 감정과 두 사람의 태도나 기대가 상충될 때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된다. 이들은 대개 부모들이 변했거나 부모들의 관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믿지만, 그러한 변화는 부모가 만약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③ 어린 청소년들(12~15세): 분노, 우울감, 죄책감, 절망을 느낀다. 그들은 돈에 대해 걱정하거나, 상당한 성(性)적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들은 동성의 부모와 경쟁하기 시작하거나 한 가정의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느끼는 긴장감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부모의 관계가 성격문제나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들 때문에 나쁘게 되어서 이혼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4.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

편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이혼에 의한 것이든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든,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가정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책임을 분담하고, 학교외의 활동들에 데려가고, 성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인성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두 사람의 성인이 없다. 더욱이 가정의 수입은 빈곤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이나 복지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부모의 자녀들이 양친이 있는 자녀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가?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그렇다고 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심리적 장애들 뿐만이 아니라 커서 자신의 결혼생활이나 양육행동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들도 있다.

가족해체의 분석과 문제점

김유숙

- 일본 동경대 의학부 보건학 박사
- 일본 동경대 의학부 객원연구원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 한국단기가족연구소 상임상담위원
- 한국가족치료학회 학회장

가족해체의 분석과 문제점

김유숙

- 일본 동경대 의학부 보건학 박사
- 일본 동경대 의학부 객원연구원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 한국단기가족연구소 상임상담위원
- 한국가족치료학회 학회장

1. 들어가는 말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커다란 변용을 하여 성장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두 개의 사이를 통과하는 이행의 시기이다. 이와 같은 변화와 이행의 시기를 아무런 고통 없이 성장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어린 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하여 번데기의 껍질 속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청소년도 있다. 이처럼 위기의 시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청소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가정이 흔들리고 해체되어 가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가족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2,30년 전에는 청소년들은 자신감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치료기관이나 상담소를 찾기 시작하여 그 후 등교거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교내폭력과 집단따돌림의 문제와 어른들과의 원조교제와 같은 외현적 문제가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추이와 함께 이전에 문제시되어 온 행동이 소실되어 가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문제행동에 새로운 문제행동이 덧붙여지는 식으로 문제행동이 다양화되어 가는 것이다. 필자의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문제행동의 청소년이 그리는 가족상이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이 그리는 가족상은 가부장적 가족으로 이른바 권위가 있는 아버지로 인한 긴장이 주요 주제이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가 되는 등교거부는 아버지상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1970년

또는 80년대에는 치맛바람으로 표현되는 자녀의 교육에 지나치게 열성적인 어머니가 두드러진 시대인데, 등교거부의 자녀가 그리는 가족상은 그것과 공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이 그리는 가족상은 아버지상의 희박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 아버지의 부재라는 단어가 자주 인용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폭력과 따돌림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즉 이 시대는 아버지가 모습을 완전히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상의 시대적 추이를 생각한 가족상을 살펴본 결과 가족을 도울 때 다음과 같은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이전 등교거부에 정형화로 보아온 어머니와 자녀가 밀착되어 아버지가 혼자 분리되어 있는 가족구조는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안의 주춧돌이라고 불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해졌을 뿐 아니라, 아버지상 그 자체의 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내 역동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복잡하다.

둘째, 각 문제행동의 가족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하여 각각의 가족 그 자체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소아적, 충동적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의 행동이 다른 가족성원을 휘말리게 하여 가족전체에 영향을 주어 본래의 가족구조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2. 한국가족문제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가족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부모 모두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교육적 기능이 상당히 상실되었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하여 조부모로부터 옛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기회 역시 상실하였다. 결국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듣고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상실하게 된 셈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가족문제는 존재하여 왔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가족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이 수행해 왔던

기능들이 사회의 여러 제도와 기타 전문기관으로 점차 이전됨에 따라 가족성원의 요구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핵가족의 불안정성은 이혼 등의 가족해체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곧 한국가정의 위기라는 등식으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한국가족을 설명하면서 한 사회학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으나(안병철, 1997),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구성원이 모여 만들어 낸 가족이란 다양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문제가 곧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은 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치유의 힘을 통하여 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자원이 취약한 가족에게 해결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 보다 기능적인 가족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1)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

한국가족의 변화는 크게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규(1996)에 의하면 한국가족의 외형적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언급될 수 있다. 가족의 소인수화 현상, 핵가족화 현상, 고립화 현상이다. 한국가족의 변화는 이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기반이 토지중심에서 임금중심으로 옮겨감으로써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핵가족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사고방식은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치관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연령, 교육, 경제수준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사이에 3세대 가족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1세대 및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1970년의 76.8%에서 1990년에 87.8%로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수에 있어서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출산율이 평균 2.18명이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증가하여 취업여성이 증가하였고 이혼율의 증가와 근무형태의 영향으로 이산가족이 증대되어 실질적인 편부모가족형태가 증가되었다. 또한 도시에서 주거소유비율이 감소하고 이사 횟수의 증가로 가족구성원들은 소원한 이웃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성적욕구의 만족, 자녀출산, 사회화의 교육, 애정의 교환, 지위의 부여, 보호기능, 경제적 기능, 그리고 종교적 기능, 오락적 기능 등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가정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산업화되어 갈수록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오늘날 와서는 가정에서의 애정기능을 제외한 다른 여러 기능들이 전문적 기관에 흡수됨으로써 가정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TV의 영향 등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정 내에서의 권위의 배분과 의사소통 유형, 자녀의 통제방법 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가정의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가정이 핵가족화 됨으로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직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도시화, 출산자녀의 감소 등으로 가족 수가 줄어들고 가족형태가 변모함으로써 가족관 및 도덕관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간의 관계가 단조롭게 되어 자녀들이 대가족제에서 배울 수 있는 보다 넓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며 고립화되고 나아가 소외감을 갖거나 안정감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핵가족은 부부의 애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애정이 식어버리는 경우 그 가정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결손가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부모가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과생되는 문제이다. 점차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아버지는 집밖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머니도 직장을 가지게 됨으로서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어 자녀에 대한 교육, 훈육, 통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기대에 따른 문제이다. 핵가족은 대가족에 비해 자녀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지나쳐 자녀들을 자신의 보상심리에 따라 정서교육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입시준비만 시킴으로써 심리적 부적응 현상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2) 가족역할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

지난 30여 년 동안 가정 내에서의 가장과 주부의 역할은 상당히 달라졌다. 전통적

가정에서 엄격히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각각의 맡겨진 역할에 충실할 때 가정이 원만해진다고 믿었던 관점은 요즘은 오히려 불화의 불씨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변화된 역할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성과는 달리 이와 같은 변화의 수용에 소극적인 남성과의 관점에 차이는 현대 가족문제에 많은 불씨로 남아있다.

(1) 부부관계

전통사회의 부부관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억압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통제관계가 제도화하여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만들어 내어 부부, 가족, 친족, 사회일반의 질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현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여성해방운동을 통하여 반항과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적 풍요, 교육을 통한 여성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한국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남편과 부인의 의식의 격차이다. 남편들의 경우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인들은 평등적 가족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식의 차이가 한국가족의 많은 가족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국가정에서 부부관계는 더 이상 남편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정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지 않으며 부인의 권한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금전관리 및 자녀교육에 관련된 결정에서 남편들이 밀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으로 보이는 평등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와는 달리 부부관계의 내부에서는 아직도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전통적인 관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부부관계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안은 부부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른바 신세대라고 불리는 부부들의 부부관계는 절대적인 평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추구해 나가고 있어서 현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는 과도기적 혼돈에 처해 있다고 본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과 독신율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2) 부모자녀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터와 가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가 시작되는 60년대와 비교할 때 최근의 남성이 자녀교육에 개입할 기회가 감소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되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가정 밖의 전문기관에 교육의 역할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가족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2,30년 전에는 청소년들은 자신감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치료기관이나 상담소를 찾기 시작하여 그 후 등교거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교내폭력과 집단따돌림의 문제와 어른들과의 원조교제와 같은 외현적 문제가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추이와 함께 이전에 문제시되어 온 행동이 소실되어 가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문제행동에 새로운 문제행동이 덧붙여지는 식으로 문제행동이 다양화되어 가는 것이다. 필자의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문제행동의 청소년이 그리는 가족상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이 그리는 가족상은 가부장적 가족으로 이른바 권위가 있는 아버지로 인한 긴장이 주요 주제이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가 되는 등교거부는 아버지상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1970년 또는 80년대에는 치맛바람으로 표현되는 자녀의 교육에 지나치게 열성적인 어머니가 두드러진 시대인데, 등교거부의 자녀가 그리는 가족상은 그것과 공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이 그리는 가족상은 아버지상의 희박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 아버지의 부재라는 단어가 자주 인용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폭력과 따돌림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즉 이 시대는 아버지가 모습을 완전히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3)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

윤태림은 한국인 성격과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에서 언어에 있어서 이성적, 추리적 사고를 표시하는 말이 적으며, 논리적 개념이나 내용을 표현하는데 부적당하며 사고방식으로 감정의 우위, 직관적 사고를 특징으로 한다고 했으며, 그런 까닭으로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한 비관용, 편협, 비타협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송성자의 연구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의사소통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지나친 감수성은 정서적 반응이 강하고 외부의 자극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충동적이

되기 쉽다. 지나친 감수성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 행동을 하게 하는 수가 있으며, 이는 서로 타협하기 보다는 자기주장만 내세워서 하나의 통일된 견해로 합쳐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강박적이고 속성이 있다.

둘째,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는 한국인이 가진 권위주의적 성격특징과 맞물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에서 가족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원은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피력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수용하도록 기대한다는 점이다.

셋째, 형식적이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형식주의적 성향은 가족제도와 관련해 볼 때 한국인은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눈치와 체면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가족구조내의 상하관계가 가족간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기 힘들므로 상호간에 눈치를 살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태도와 생각을 알아내는 감각이 발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평가를 중요시하는 것은 개성의 결여와 자기의 가치와 감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대화는 비언어적 의사전달의 선호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명백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의사소통의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지향적이라는 점이다.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종래의 것을 중요시하여 유지하려 하고 지나간 생활 또는 지나간 일은 잊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의사소통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의 괴리감을 조장하여 결국 대화의 차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4) 밀착과 격리와 관련된 문제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원 사이에 경계가 명백하고 we 또는 us라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 I-ness라는 자의식을 각 가족원에게 준다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밀착과 격리는 가족문제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밀착은 가족이 서로 생활에 너무 염려하고 지나치게 개입하고 가족상호작용이 극단적으로 근접하고 강렬한 형태를 말한다. 밀착된 가족에서 하위체계 경계는 구별이 잘 안되고 약하고 쉽게 바뀐다. 또한 이 가족의 가족원들은 가족응집력에 가치를 높게 두고 자주성을 잃고

가족 밖에서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격리된 가족은 독립적이며 자주적으로 기능하나 가족의 충성심은 거의 없다. 그들은 상호의존성의 능력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힘이 부족하다.

가족원 중 한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밀착된 가족은 지나치게 빠르고 격렬한 반응을 하는데 반해, 격리된 가족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서구사회에서는 도시화, 산업화가 2-3 세기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변화를 지난 50여 년 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들 변화가 가족에 미친 영향력은 막대하다. 전통가족에 비해 현대가족은 개인주의, 부부중심 가족간의 민주적 관계, 여성의 지위향상 등의 방향으로 변함으로써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중류가정까지도 핵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변형된 확대가족 문화 속에서 가까운 확대가족들과의 강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주요 가치들은 효, 화평과 조화, 중용, 분수를 지킴, 질서, 친족의식, 충성심, 순응성, 인내심, 상부상조, 인격의 통합, 자기통제, 강한 소속의식 등의 형성에 기여했다.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특징으로는 위계질서, 솔직한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억제, 감정의 억제, 갈등의 회피, 갈등해결을 위한 제3자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수십년 간 한국에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와 실리주의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과 집단지향적인 면이 많이 약화되고 현대적인 가치관과 자아지향적인 의식이 강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집단지향적인 면이 우세한 가운데 이 두 상반되는 가치관들과 의식의 대립은 한국사회와 가정 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동원은 1958년과 1980년도 도시가족주부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조사 했는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8년 당시에는 부부갈등의 원인 중 56%가 경제적 문제였던 것이 1980년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와 자녀문제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상태의 변화에 비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생활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됨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녀교육과 정서적인 생활의 질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가족문제성향은 물질적, 물리적인 가족구조와 환경보다는 부부관계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음

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가족문제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가족치료의 관점에서 본 가족해체의 문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틀에서부터 지나치게 자유로워져서 자기위주의 삶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도 이전처럼 결혼을 하거나 항상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대인은 가족이라는 주어진 틀을 힘겹게 지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견우와 직녀처럼 헤어져 살면서 서로가 필요할 때 만나서 즐기는 보다 자유로운 생활형태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환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은 가족이란 한 지붕아래서 의식주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상생활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나 가정의 실상은 옛날과 사뭇 다르다. 현대의 가족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처럼 서로 관여하는 연기자처럼 느껴진다, 즉, '부부답게, 부모답게'의 모범답안에 움직이는 꼭두놀이를 하는 것 같다..

이 같은 임상적 직관을 중심으로 가족해체의 원인을 정리해 본다.

1) 원가족에서의 미분화

많은 경우 가족문제는 가족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부모의 어느 한 쪽이나 양 쪽 모두가 자신들의 원가족의 부모문제에 강하게 휘말려 있으면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한 개인의 현재의 가족 기능은 원가족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현재의 기능에 만족할 수 없으면 원가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가족구조의 변화로는 우선 핵가족화를 들 수 있다. 원래,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가족구조 속에서 어려서부터 가족 내의 최고권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면 일신상의 안전이 보장되므로 의존적인 성향이 조장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가정이 핵가족화 됨으로서 이와 같은 가치는 흔들리게 되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직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도시화, 출산자녀의 감소 등으로 가족수가 줄어들고 가족형태가 변모함으로써 가족관 및 도덕관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간의 관계가 단조롭게 되어 자녀들이 대가족제에서 배울 수 있는 보다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며 고립화되고 나아가 소외감을 갖거나 안정감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핵가족은 부부의 애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애정이 식어버려서 가정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초래되는 결손가족과 함께 가족이 지나치게 밀착되어 버린 가족이 증가되었다. 다시 말하면 과잉보호와 지나친 기대에 따른 문제이다. 핵가족은 대가족에 비해 자녀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지나쳐 자녀들을 자신의 보상심리에 따라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문제는 가족의 해체와 함께 자녀가 가족에서 분리되지 못하는 문제나 가족 충성심과 관련된 어려움이 크게 대두되게 되었다.

2) 가족 내의 빈약한 의사소통

Statir는 인간의 역기능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인간의 자존감, 가족규칙, 의사소통의 방법,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에 두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들이 자신과 다른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정서적 수준과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Satir는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히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 그와 같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들이 자존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가족규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이 직접적이며 정직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정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평가개념으로 자신의 사고, 가치관 그리고 행동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내면에는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하는 욕구가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며, 점차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로 확대되어 가는데 이 모든 관계들은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한다. 자존감정의 형성은 가족구조와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간의 어린 시절의 관계형성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였거나 자녀가 자기 가치와 자존감정을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기회를 주고 반응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존감정이 낮게 형성된 경우도 있다. 그 뿐 아니라 부모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모델이 되고, 의사소통의 내용이 부정적일 경우 직접적으로 자녀의 자존감정은 손상될 수 있다. 자존감정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를 느낄 때 에너지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에너지는 강하고 유용한 것이 되어 현재 주어진 상황을 창조적이고 현실적이며 잘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가족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사전달채널을 확립하고 유지시킬 수단과 방법이 발달되어야 한다. Wynne등(1982)은 자녀에게 적당한 행동을 촉진시키는 부모의 역할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건강한 의사소통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게 똑같은 주의집중을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동안에 공유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김유숙, 2000. 재인용).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가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물리적으로도 가족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즉, 점차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아버지는 집밖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머니도 직장을 가지게 됨으로서 청소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윤태림은 한국인 성격과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에서 언어에 있어서 이성적, 추리적 사고를 표시하는 말이 적으며, 논리적 개념이나 내용을 표현하는데 부적당하며 사고방식으로 감정의 우위, 직관적 사고를 특징으로 한다고 했으며, 그런 까닭으로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한 비관용, 편협, 비타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송성자 역시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 중에는 지나친 감정중심과 비언어적 의사전달이 언급되고 있다. 즉, 한국인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지나친 감수성은 정서적 반응이 강하고 외부의 자극이나 인상을 감각신경에 의해 받아들인다. 그리고 직관적이어서 감각을 잘하고 충동적이 경향이 있다. 지나친 감수성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 행동을 하게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성격은 서로 타협할 줄 모르고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무언가 통일적으로 하나의 견해로 합쳐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강박적이고 성급한 속성이 있다(송성자, 1985).

또한, 한국인의 감정표현의 결여성향과 어른스런 행동의 강요, 엄격한 아버지, 강한 인내력, 그리고 상하의식과 같은 요인들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

다. 있어도 없는 척하고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좋아도 좋지 않은 척하고 싫어도 좋은 척하는 것은 모두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명백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잘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국가족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가족환경에서 자라나는 한국 청소년 가족의 의사소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사료된다. 특히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위장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유형이 자주 보일 수 있다. 위장(mystification)은 가족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덮어 감추고 가면을 씌우는 것에 의해 갈등과 모순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가면방법은 갈등을 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덮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4. 맺는 말

긴장, 좌절, 불안 등 현대생활의 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곤란한 사정, 긴장, 실패의 경험이 없는 가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가족은 일반적으로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곤란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어서 평소의 생활에서는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지속되거나 생활의 중요한 상처받기 쉬운 영역을 건드렸을 때 또는 몇 가지 문제에 동시에 맞부딪치게 될 때, 가족은 그들이 지닌 관습적인 문제해결전략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위기는 가족이 새로운 양식으로 대처하도록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효과적이지 못한 행동유형으로 가족퇴행의 원인이 되지만, 때로는 위기는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가족의 구조, 의사소통, 융합과 분리의 관점에서 한국가족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치료기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되어 지는 가족치료의 기법은 서구의 문화와 가치관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가정의 문제에 대한 고려는 가족치료의 새로운 기법추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숙(2000) 가족상담. 학지사.

김유숙(2002)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학지사.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전대 박사학위논문

안병철(1997)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유영주(1993)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교문사.

이광규(1996)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동원(1981) 도시가족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39.

I. Goldenberg & H. Goldenberg(2000). Family Therapy : An Overview(5th ed.).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Michael P. Nichols(2001). Family Therapy : concepts and methods(5th ed.).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가정해체 청소년의 심리평가 사례

소유경

- 전남대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 삼성서울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장

가정해체 청소년의 심리평가 사례

소유경

- 전남대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 삼성서울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장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의 정의

- 심리검사는 심리적 현상에서의 개인차를 비교하고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과정
- 행동관찰과 면담자료의 참고 뿐만 아니라 심리학 및 정신병리론 등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으로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 여러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 의뢰사유나 내담자의 문제에 맞추어 심리검사를 선정하고 검사를 시행하며,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다른 자료와 종합하여 평가한 후 다른 전문가 및 피검자와 그 결과를 공유

2. 심리검사의 목적

- 개인내, 그리고 개인간 비교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 심리적 장애의 해결을 위한 치료 개입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초과정
- 구체적인 심리검사의 목적
 - 1)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하고 세분화한다.
 - 2) 증상과 문제의 심각도를 구체화한다.
 - 3) 피검자의 자아강도를 평가한다.
 - 4) 인지적 기능을 측정한다.

- 5) 적절한 치료 유형을 제시한다.
- 6) 치료전략을 기술한다.
- 7) 피검자를 치료적 관계로 유도한다.
- 8) 치료적 반응을 검토하고 치료효과를 평가한다.
- 9) 개인의 정신역동적 진단을 명료화한다.

3. 심리검사의 유형

- 심리검사는 측정되는 내용과 검사제작방법에 따라 투사적 검사(Projective Tests)와 객관적 검사(Objective Tests)로 구별
- 검사 도구나 검사 시행 방법, 반응의 채점방식은 일정한 표준절차를 따르게 됨

4. 심리평가 사례

- * 사례 1 -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부모를 가진 산만하고 짜증을 잘 내는 아이'
이 민 우(가명), 남자/11세, 초등학교 4학년
- * 사례 2 - '부모의 이혼 후 유분증을 나타내는 정인지체를 가진 중학생 남아'
김 영 식(가명), 남자/12세, 중학교 1학년
- * 사례 3 - '갑자기 팔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고등학생 여아'
박 희 수(가명), 여자/16세, 고등학교 2학년
- * 사례 4 - '오토바이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편부가정의 아들'
손 영 석(가명), 남자/18세, 고등학교 2학년 중퇴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위하여: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

한혜빈

- 독일 튀빙엔대학교 사회행동과학부 박사과정 수료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부회장
- 부천여성포럼 대표,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심의회위원장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회장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위하여: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

한혜빈

- 독일 튀빙엔대학교 사회행동과학부 박사과정 수료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부회장
- 부천여성포럼 대표,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심의부위원장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회장

I. 현대사회의 특성

문화역사적으로 가족은 가부장적 지배의 온상이었고 여성과 아이들은 종속을 위한 도구적 삶에 불과하였다. 독점적인 남성우위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인 여성학대와 아동학대가 일어나며, 청소년 비행과 이혼, 인권유린과 사회문제가 깊이 뿌리를 내린다. 권리를 억압하는 지배와 복종의 악순환이 가족의 평화를 잠먹어 왔으며 역기능적 가정이 고개를 들고 풍요로워야 할 가정을 불행하게 한다.

1) 3F의 시대(feeling, fiction, female): history -> herstory

2) 개성과 다양성

3) 다양한 가족의 출현

(기러기 아빠, 방학부부, 무자녀가족, 동성애가족, 노인단독가족, 가족동동체등등)

II. 현대가족의 문제

우리나라 가족문제의 경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가정의 빈곤문제, 가족구조상 취업여성의 증가, 빈부차이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등이 가족문제로 등장했다.

둘째, 핵가족화의 결과, 주말부부의 증가, 자녀수 감소,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르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가족 보호기능의 약화

셋째, 가족의 통제능력과 통제기능의 약화이며, 가족공동체로서의 사회화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결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유기, 별거, 이혼의 증가. 배우자부정, 향락산업의 발달등 가정해체에 따른 결혼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장애 아동과 비행청소년등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동거부부, 실험 또는 계약결혼,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독신가족, 공동체 거주가족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압도하고 있다.

< 표1 >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기능	기능의 변화
경제공동체 기능	생산기능/약화, 소비기능 강화
성행위와 출산통제기능	성과 출산통제 기능 약화, 부부간의 성생활기능 강화
자녀양육과 사회화기능	자녀양육기능 강화, 국가와 공유 사회화기능 왜곡, 성차별적 사회화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강화
사회보장 기능	기능 왜곡(핵가족 책임론) 사회보장기능 국가와 공유
지위계승(계급재생산)기능	지위계승기능 강화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사회화·상품화·기계화

자료: 여성한국사회연구소, p.54.

- 1) 이기주의 vs 이타주의: 교양
- 2) 물질만능주의 vs 인간성의 상실--> 너무 쉽게 자살한다
(빈부의 격차)
- 3) 경쟁 vs 상호협력
- 4) 쾌락주의

III.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성

- 1) 나는 누구인가 : 보통사람이 결코 아니다.
- 2) 문제 아동과 문제 부모
- 3) 문제 청소년과 문제 선생님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2 > 총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구성현황

(단위: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총범죄	1,804,405	2,018,296	2,117,759	2,341,431	2,400,485
소년범죄	124,244	146,986	164,182	161,277	150,821
구성비(%)	(6.9)	(7.3)	(7.8)	(6.9)	(6.3)

자료: 대검찰청.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 백서에 나타난 2000년도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범이 37.6%, 재산범이 24.3%, 살인강도 등 강력범이 3.4%, 교통사범이 27.1%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15세 이하의 소년범죄는 '95년 28.1%에서 '99년 21.15%로 낮아진 반면에 18-19세 사이의 범죄소년은 '95년 35.1%에서 '99년 43.25%로 높아졌다.

가족관계별 현황을 보면 실부모가 있는 소년이 73.2%로 가장 많고 다음은 편모 8.3%, 편부 7.0%, 무부모 3.1%, 실부계모 1.1%, 실모계부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범죄의 동기별 유형을 보면 우발적 범행이 30.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주의이다. 그리고 이기적 욕심에 의한 경우가 12.2%이다. 특히 이기적 욕심에는 유희비 조달이 37.2%로 나타나 청소년의 소비 유희적 욕구 억제를 위한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결손을 보완하는 일이다.

어떤 형태이든 가정의 결손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청소년들에게 애정의 결핍, 교육부재, 불화등의 갈등을 겪고 성격 장애가 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결손가정의 발생은 어쩔 수 없어도 가정 기능의 결손을 막아야 한다.

둘째, 갈등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강요는 배제되어야 한다. 상대의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키고,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격차를 해소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과 과잉보호, 기대는 탈피하여야 한다.

맹목적인 사랑은 편견과 아집, 나약함을 길러주며, 바른 인격 형성을 하지 못한다. 가정내의 자녀수의 감소로 인하여 현대 가정은 한명내지 두명의 자녀가 대부분이므로, 자녀들은 과잉 기대로 인한 심한 강박관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비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부 학업만이 아닌, 여가와 방과후의 취미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해야 한다.

다섯째,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지식생산 공장이 아니다. 전인적인 인격형성과 성장의 장으로 탈바꿈하여 좌절과 부적응의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생활지도의 강화와 교사의 자질향상

일곱 번째, 마스크의 통제와 유해환경의 제거

여덟 번째, 청소년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치료위주의 사업과 비현실적인 법은 예방사업과 현실성이 있는 법으로 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근로청소년과 무직 실직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투자와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행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례>>

**구 관내 8개학교 약 16537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내 학생들이 이용하

기 편리한 곳에 무료상담전화(수화기를 들면 바로 복지관 전화상담원이 연결)를 설치하여 학내폭력, 흡연, 음주, 약물, 가출, 도벽, 부적응, 성 고민, 스트레스등에 관한 청소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희망자에 (변화동기 소유자)에 한하여 지속적인 개별상담과 청소년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며, 각 학교 상담선생님의 상담전문교육을 통하여 학교내에서 상담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모음집, 2001).

<역기능 가정에 대하여>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병든 가정과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연구한 규란은 역기능가정¹⁾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역기능 가정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가정으로 그 결과 스트레스로 하여금 더 긴장시키고 부서지게 만드는 가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역기능적 가정은 심각한 병리가 있거나 불행으로 낙인찍힌 가정이 아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여서 이미 취약해진 가정단위를 더 이상 약화시킬 수 없는 가정을 말한다. 역기능적 가정은 종종 주변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세대간의 경계가 혼돈스럽고, 상호간에 자유와 독립을 주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불안감이 높다.

역기능적 가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역기능 가족은 갈등과 좌절등 그들의 문제를 부인한다.
- (2) 구성원끼리 서로 거리감을 느끼며 친밀감에 공백이 있다.
- (3) 역기능가정은 수치심에 기본을 두고 있다. 부모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녀들은 가정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생각, 자기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자기가치 감정과 자기존중 감정이 낮다.
- (4) 역기능가정은 고정되고 경직된 역할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자녀는 가족체계를

1) Glick Ira, Berman,E., Clarkin, Rait,: Marital and Family Therapy, Chap. V. "Problems and Dysfunction From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American Psychiatric Press,Inc. 2000.

위해 자신의 현실을 포기한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속죄양이 된 사람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포기한 가족 구성원이며, 마스코트, 멍텅구리, 바보, 문제아등으로 낙인 찍힌다.

(5) 역기능적 가족의 식구들은 피차의 경계선안에 속박되어 있다. 비분화된 가족자아 집합체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겁에 질려 있으면 온 가족이 겁에 질려 있다.

(6)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언제나 낮은 수준의 분노와 우울한 감정이 깔려있다.

(7) 갈등이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소통 방법이 간접적이고 애매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표현능력이 부족하며 진정한 인격적인 접촉이 없다.

(8) 가족규범은 통제와 완전주의 그리고 비난이다.

(9) 외부체계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며 회유적이고 책임을 전가한다.

(10) 절대적이고 과대망상적 의지가 강하다.

알코올 중독, 과잉 통제부모, 언어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역기능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알코올이나 마약 못지 않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해를 끼치는 중독으로는 과식·일중독·문란한 성행위·이교집단 심취·도박·반 사회적 운동·충동적 쇼핑 등등까지를 역기능적 가정의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외에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혼란된 가족체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가족체계, 종교적으로 경직되고 독선적인 가족체계가 역기능적 가정에 해당된다.

IV. 삶의 본질과 의미 : 사실과 진실

< 미래의 가족 :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

우리는 가족내 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하며 상생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힐 기회가 없었다. 가족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가 개입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가족복지의 정책적 방법과 서로 구성원간에 대화기술과 대인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사회사업의 전문적 방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바람을 타고 천민 자본주의식의 사회병리적인 가족해체와 퇴폐 향락문화가 물밀듯이 한국 가족, 사회, 경제에 밀려들어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만일 우리의 가족제도가 이에 휩쓸리고 압도당한다면, 가족해체 현상이 만연하고 퇴폐 향락주의와 이기주의가 가족 관계에 까지 침투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주저앉아 버릴 것이다.

21세기에는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를 더욱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와 같은 세계체제의 도전에 대하여 한국의 가족 의식, 제도와 정책은 물론 변화하여야 한다. 사실상 단일한 가족경험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천년대의 우리는 가족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훈련을 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에 다다를 수 있다.

가족은 평화로운 삶을 준비하는 핵심의 장소이며 평화를 학습하는 최초의 교육장이기 때문이다. 이 초기 가정교육 과정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세계를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깨우치게 된다. 여기에서 평화로운 해결이 얼마나 가치있고 귀중한지를 깨달아야 하며 그를 위한 접근 방법을 배워야 한다. 기존의 세대간 성간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각자의 태도와 가치관에 직면하여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와 의지, 평화의 학습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녀의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는 가족평화만들기의 핵심이다.

남과 녀. 부부가 상호존중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의 원리에 의해서 이 평화는 사회의 평화로 연결될 수 있다. 가족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책임의 분담, 동정적인 이해. 관용, 자기확신등의 원리를 가지고 가족생활을 통해 표현하는 훈련을 쌓고 나아가 가족성원의 세계관에 이러한 미래의 가치관이 스며들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

사랑은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무한히 베풀고 희생하기가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호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메워주는 것이다. 혼인이란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안에서 남녀모두가 자신을 성장 발달시킬 수 있는 발달단계요 아주 소중한 기본 관계

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예를 들면 주말부부, 방학부부, 가정남편(househusband), 동성애부부, 공동체 가족등이 앞으로 더 많이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대안 연구가 시급하다. 즉 가족정책은 남녀평등의 취업구조, 직장탁아, 임금구조의 평등화, 가사활동의 사회영역으로의 전환, 호주제 폐지, 세제개선 등의 요구들을 담아내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현실을 감안한 대응을 시급히 하여야만 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아동 청소년 결혼가정등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가족복지적 개입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살핌이 더 이상 가족의 고유한 가치이자 기능이 아니고, 사회의 기능이요 국가의 가치가 되어야 함을 아무리 강조하도 지나치지 않는다.

- 1) 사랑으로 치유되는 삶-사실적인 삶
- 2) 사랑을 위하여-삶의 진실
- 3)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가는 가족: “가족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유럽 입양아동의 사례

도움을 주신 분들

한국인성컨설팅 노주선 대표

서울여자대학교 김유숙 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소유경 임상심리실장

서울신학대학교 한혜빈 교수

자원봉사자

경희대학교

양미경

하애나

성균관대학교

김진용

임재원

이종욱

한국외국어대

도지언

전수지

이승아

협성대

임수진

일 반

유외행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